

재난안전연구소 이슈페이퍼



Contents

산불재난의 경험을 통한 재해구호 방향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미국 파라다이스 마을 사례를 통해 보는 산불에 대한 회복력 토대 마련과 구축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연구교수 노복진

재난안전연구소 활동 동향(1월~5월)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산불재난의 경험을 통한 재해구호 방향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규모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산불이 지속되며 호주 전체 산림 면적의 약 14%가 소실되었으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3개월간 산불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산불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며 10일간 밤낮없이 타올라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49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한울 원전과 같은 국가기간시설은 물론 수백년 자란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협하며 213시간 43분이라는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하며 진화된 이번 산불은 2019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피해규모를 넘어선 최대의 화마로 기록되었다.



이번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흔적은 수많은 주민들의 주택, 농경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에까지 미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열흘간 소중한 산림이 불타는 모습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이재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온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였다.

이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산불 재난 이후 국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기부금의 전달과 많은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 국가의 지원 등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화마로 생명을 잃은 동·식물과 불타버린 문화재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산불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와해된 지역공동체 또한 회복하기까지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산불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현황과 올해 발생한 경북 울진 및 강원 산불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수행한 재해구호활동의 고찰을 통하여 산불재난 이후 재해구호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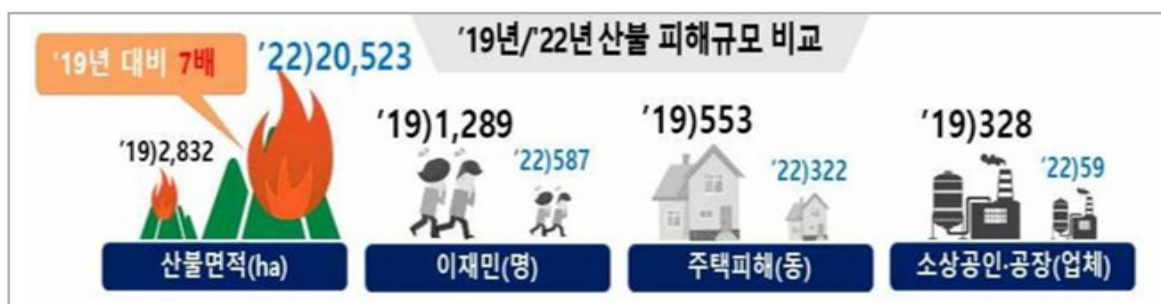
우리나라 산불 발생 현황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3월 13일 주불 진화가 완료되며, 피해면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 산불이며, 2,261억 원의 피해액(2022년 4월 6일 기준)을 발생시키며 가장 피해가 큰 산불로 기록이 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23건으로, 2019년이 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2018년, 2020년도도 각각 4건, 2013년 2건, 2011년에 1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3년도에 32명, 2018년 18명, 2017년 7명, 2019년과 2020년도에 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 발생한 산불로 2,5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였다.

산불 발생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산 4건, 서울과 경북이 각각 3건, 울산 2건, 인천 2건이 발생하였고 발생기간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5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생한 산불 또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까지 번져나가, 400세대가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388채의 주택과 198개의 공장 및 창고, 232개의 농·축산시설의 피해를 입혔으며, 71,527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산불이 진화되었다.



출처 : 에코타임스. “경북·강원 산불피해, 사상 최대규모 복구”(2022.04.07)

최근 큰 산불이 발생하였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마른 번개(낙뢰)등으로 인한 자연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은 해외의 사례와 달리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쓰

레기 소각, 담배꽂초 버리기,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민의 방화의 의한 것이었으며,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지나가던 차량에서 던져진 담배꽂초로 추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 산불재난에 대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대응

3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이재민 대피소에서 필요한 구호물자 파악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 차림으로 울진국민체육센터 등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무르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해구호키트와 식품, 대피소 칸막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의류 및 담요 등을 일차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재민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인력을 위해 물티슈, 세면도구, 간식류 등을 지원하였다.



산불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이재민이 입은 피해 또한 커졌고, 대피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 전국재해 구호협회에서는 피해 지역에 세탁구호차량을 투입하여 이재민과 산불대응 인력을 위한 세탁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동식 방역구호차량을 통해 대피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전염병 예방에 힘썼다.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본 이재민과 밤낮없이 산불진화를 위해 투입된 인력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현장 구호활동도 진행하였다.

또한, 산불로 주택이 소실된 이재민을 위해 희망하우스(임시조립주택)를 지원하였고, 행정안전부와 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긴급 이사회 개최를 통해 신속하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재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였다.



산불재난 사례를 통한 재해구호의 방향

산불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과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지상파 방송 3사의 특별 모금 생방송 및 주요 언론 매체들의 알리를 통한 국민들의 기부가 더해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만 530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되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같은 민간구호기관은 재난 발생 즉시 피해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국민 성금을 모집하는 등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호 체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은 대부분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자연재난과 달리 기부금의 모금 및 배분 기준 또한 모호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복구작업이 지연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된 기부금은

자연재난 피해를 돕기 위한 의연금과는 달리 기부금품법에 따라 집행되다보니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배분이 되지 않고,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복구의 지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과 지원액을 두고 피해지역의 주민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2019년부터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구호 분야는 여전히 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는 단편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난은 단일의 기관 또는 부서가 대응할 수 없으며, 재난 이후의 복구과정에서는 특히 민간구호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이재민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해구호 활동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해구호 과정에서 단순히 물품이나 성금 등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재해구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파라다이스 마을 사례를 통해 보는 산불에 대한 회복력 토대 마련과 구축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연구교수
노복진



2019년과 2020년, 남쪽 태평양에 위치한 호주의 하늘이 어두운 잿빛으로 뒤덮였었다. 2019년 여름에 시작된 산불은 온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약 7개월 동안 지속되며 푸르렀던 호주의 남부와 동부의 삼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반년 이상 지속되는 산불이라니. 몇몇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물론 호주 동부연안을 화염이 휘감고 있을 때, 당시(2022년 5월 현재도 임기 중) 호주 총리 Scott Morrison은 하와이에서 가족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과거 겪어본 적 없는 이 대규모 산불의 원인을 과연 정부의 대응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일까.

최근 우리가 뉴스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기후 변화를 떠올린 이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산불은 어떠한가. 호주의 전례 없는 산불의 원인을 전적으로 기후 변화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하지만, 2019년 여름 호주는 평년대비 고온 건조한 날씨의 연속으로 산의 나무들은 평소보다 약 30% 이상 불이 붙기 수월한 조건이었다고 하니(van Oldenborgh 외, 2021) 기후변화가 산불의 확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지속적인 도시화, 인간 활동의 확장, 그리고 삼림 벌채와 같은 삼림 환경의 변화는 산불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산불 리스크¹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있다. 바로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개념이다. 사실 회복력은 산불만이 아니라 복잡·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재난 리스크 관리에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학문 분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 리스크 연구분야에서 회복력이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등의 시스템에 충격(예, 재난)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견디고 흡수하며, 그에 적응하고 변화하며, 그 충격으로 인한 영향에서 효율·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여기서 시스템이란, 사회의 문화·경제·환경·물리적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회복'이란 단지 충격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 즉 유사한 혹은 더한 충격이 왔을 때 더 적절하게 대응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상태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종종 회복력을 이야기할 때 더 나은 상태를 만들자는 의미로

1) 리스크(risk) 라는 개념은 산불, 홍수와 같은 현상자체를 의미하는 위험(hazard)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및 손실의 정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 단어로 risk 개념을 포괄하기 어려운 이유로, 본 글에서는 특정 단어의 번역 대신 '리스크'라는 외래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Build back bettr(BBB)”라는 구호가 언급되곤 한다.



캠프산불_파라다이스마을 피해 (출처 : Carolyn Cole/Los Angeles Times)

그렇다면, 산불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이란 무엇일까? 본 지면에서는 산불의 회복력 구축의 예로 미국의 한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회복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 내 산불 발생 위험(hazard)이 가장 높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미국 내 산불로 인한 면적손실의 약 40%가 이 지역에 속하고 캘리포니아 가구 12채 중 1채가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Verisk, 2021).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산불 중 20세기 중반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은 2018년 11월 뷰트 카운티(Butte county)에서 발생한 캠프 산불²로 약 2주 동안 지속되며 620.5km²(약 서울 면적)의 면적을 소실시켰고, 88명의 인명피해와 약 19,000채의 건물을 소실시켰다. 이 산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마을은 약 27,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던 파라다이스(Paradise) 마을이었다. 이 마을이 캠프 산불로 입은 경제적 피해는 약 \$180억(약 ₩21조 이상)으로 피해 건물 총 19,000채 중 14,000채 정도가 이 지역에 위치한다. 워낙 피해가 컸던 터라, 마을은 산불이 진화된 11월 말에 당장 복구 진행을 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부터 복구사업을 시작하였다. 보통 산불 진압 후 마을 복구사업이라 하면 주로 마을의 잿더미를 치우고 소실 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파라다이스 마을은 이 복구 과정 진행에 있어 특별한 전략을 마련했고 이 전략은 마을의 회복력 구축을 위한 성공적 예로 회자되고 있다. 어떠한 전략일까?

앞서, 회복력이란 사회가 충격을 받기 이전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산불이라는 충격에 더 잘 대응하고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산불 위험에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앞으로의 산불로부터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정책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파라다이스 마을은 여러 지역 기부단체

2) Camp Creek Road라는 장소에서 산불이 시작하여 캠프 산불이라고 부른다.

와 사업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했다. 이 재정을 바탕으로 마을은 “장기 복구 계획”에 착수했는데, 바로 이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다. UDA(Urban Design Associates, 도시 디자인 담당자)라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UDA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그리는 마을 재건에 대한 방향성과 청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업무로 삼았다. 지자체는 마을에 대한 이해와 재건 계획에 있어 마을의 기존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의견에 기반하여 산불에 대한 회복력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복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캠프산불_파라다이스마을 복구계획비전 (출처 : Urban Design Associates/Town of Paradise)

UDA는 주민 참여를 위해 1월에 시작된 복구 계획과정에 있어 수차례 크고 작은 지역주민들과의 미팅을 가졌다. 지자체 공무원, 도시 계획가 등도 함께 참여한 이 미팅들은 300명에서 800명 정도의 대규모가 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15-20명 단위로 나누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재난으로 인해 드러난, 파라다이스 타운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약 5개월 동안 지속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마을 재건에 대한 21개의 테마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재건을 위한 5개 카테고리 (더 안전한, 더 환영하는,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더 강한 마을)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파라다이스의 장기 복구 계획의 비전이 되었다. 예를 들면, ‘건기 좋은 동네 만들기’와 같은 최근 지역 개발 추세를 무조건 지향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안전한 대피경로 확보를 원하면, 도보, 자전거, 자동차의 대피경로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마을을 디자인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이후 기존 상태로 마을을 복구할 경우 산불 재발 시 여전히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마을의 밀집도 조정과 경관 및 가구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산불 회복력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Perry 외, 2021).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회복력 구축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 마을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복구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마을 경관을 재구성함으로써 산불 회복력을 쌓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 이러한 주민 의견

에 기반을 둔 복구 계획을 통해 마을 지자체는 건축 규제 및 기준을 재정비하고, 산불 버퍼지대³⁾를 조성했으며, 대피로 및 대피소 안내,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 등 주민 지원 활동도 마련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회복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마을은 산불 발생 후 3년이 지난 2021년 11월 전체 소실 된 건물 중 약 8%만이 재건되었고 여전히 산불 이전 인구 대비 절반이 안 되는 수의 주민만이 마을에 복귀한 것을 볼 때, 산불은 예방이 제일이다. 하지만, 자명하게도 모든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불 발생 시 그 충격에 대응하고 마을을 이전보다 더 바람직하게 복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산불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Climate Council. (2019. 11월 12). *'This is Not Normal': Climate change and escalating bushfire risk*. Briefing paper.

Perry, F. N., Kredell, C., Perry, M. E., & Leonard, S. (2021). *Rebuilding for a Resilient Recovery Planning in California's Wildland Urban Interface*. Next 10 프로젝트 리포트.

van Oldenborgh, G. J., Kriken, F., Lewis, S., Leach, N. J., Lehner, F., Saunders, K. R., van Weele, M., Haustein, K., Li, S., Wallom, D., Sparrow, S., Arrighi, J., Singh, R. K., van Aalst, M. K., Philip, S. Y., Vautard, R., & Otto, F. E. L., (2021). Attribution of the Australian bushfire risk to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21, 941-960.

Verisk. (2021). Verisk Wildfire Risk Analysis.

<https://www.verisk.com/insurance/campaigns/location-fireline-state-risk-report/>

3) 여기서 버퍼지대란 산불 발생 시 산불이 바로 주거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불 위험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확보하는 일정한 거리(또는 면적)를 의미한다.

재난안전연구소 활동 동향(1월~5월)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I. 세미나 및 포럼

1. 희망브리지 일본지사 설립 기념 세미나 - 제2회 한·일 재해구호 세미나

- 일시 : 2022. 1. 5.(수), 10:00 ~ 11:30
- 장소 : 온라인(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홀)
- 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내용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자연재해 등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재난의 대응 및 구호 방안 등에 대한 협력적 연구 수행을 위해 일본 효고현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일본지사 설립 기념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적 재난 구호의 방향 모색 및 한국과 일본의 재해구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 한·일 학술교류 -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역 회복 협력 방안 포럼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동을 생각한다Ⅶ

- 일시 : 2022. 2. 18.(금), 14:00 ~ 17:00
- 장소 : 한·일 동시진행 온라인 개최(한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홀)
- 공동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간세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416재단
-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의 심리지원, 피해 지역인 안산시의 지역 활성화·지역 부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및 지역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의 지역회복 협력 방안의 공유 및 중장기적인 재난재해 구호의 방향 및 한국과 일본의 재난재해후의 지역 활성화·지역 회복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3. 제4회 강원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정책세미나

- 일시 : 2022년 4월 4일 (월), 14:00 ~ 18: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공동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 내용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2019년부터 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강원 산불 이후 지역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산불 및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복구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지역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해구호 활동 및 재해구호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4. 2022 코로나19와 대규모재난이후 현장중심 회복력 강화방안

- 일시 : 2022. 4. 21(목) 13:00 ~ 22(금) 12:40
- 장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15호관 국제회의실
- 공동주최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문사회지원사업단,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학회
- 내용 : 재난의 발생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 및 사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의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안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및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II. 연구과제

1.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모금방안 연구(완료)

- 기간 : 2021. 12. 9. ~ 2022. 5. 8(5개월 간)
- 수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난발생에 대한 구호방안 등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구호 및 모금 방안을 연구하였다.

2. 반려동물 구호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세트 개발 연구(진행중)

- 기간 : 2022. 3. 14. ~ 2022. 11. 14.(8개월 간)
- 수행기관 :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
- 목적 : 재난의 양상이 점점 빈번하게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정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외 반려동물 재해구호방안 현황 파악 및 반려동물용 재해구호세트 샘플제작을 통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안전망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용 재해구호세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및 강원 속초 지역의 이재민에게 강아지·고양이 재해구호세트를 제작하여 1차로 배포하였다.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재해구호방향 논의를 위하여 하반기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재해구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

국립재해구호협회 | 한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 HERI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개선, 더 나은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호활동, 재난복지, 재난약자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손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브리지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 대비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더 나은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단기적인 이재민 구호에서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구호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책 세미나 개최, 공무원·자원봉사자·시민 대상의 재난교육 실시 등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1544-9595
 FAX 02-3272-0122
 HopeBridge.or.kr

발행일 : 2022. 6. 7.
 발행인 : 송필호
 편집인 : 김정희
 편집디자인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